

마가복음의 예수님(22) - 예수님을 경험하는 교회(막4:35-41)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사도 바울의 뜻대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고, 더 알아갈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한다(빌 3:8). 여기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평생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한다. 오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한층 깊어진 것이다.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자.

1.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고물'은 배의 뒷부분인 선미를 가리키는데, 배에서 움직임이 가장 심한 곳이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밤낮으로 쉴 틈조차 없으셨기 때문이다(막3:20).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모습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잘 보여준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히4:16).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흠 없는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자.

2.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말 한 마디로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육신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셨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것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다. 앞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단호하게 꾸짖으셨다(막1:25).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실 때도 병을 향해 꾸짖으셨다(눅4:39).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역사의 시작과 끝도 예수님께 달려 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3. 불신을 꾸짖는 예수님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지식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야 한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배에 함께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는 의미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풍랑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단지 인간 스승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41절).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순간, 이제 그들은 풍랑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풍랑 속에서 이 믿음 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자.

마가복음의 예수님(22) - 예수님을 경험하는 교회(막4:35-41)

1. 마음 열기 - 참된 쉼과 휴식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2. 경배와 찬양 - 80장, 주 품에 품으소서

1. 주 품에 품으소서
 님 안에 나 거 하 리
 능 령 의 팔로 덮으 - 소 서 -
 주 능 령 나 잠잠히 - 밀 네 -
 거친 파도 낚향해 - 와도 - 주와 함께 날아오 - 르 리 -
 폭풍가운 데나의 - 영혼
 - 잠잠하게 - 주를 보 - 리 라 - 2. (주)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 본문과 말씀 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 본문과 주일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 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절치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 (3) 폭풍우와 같은 고난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스승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처럼 폭풍우 같은 고난 중에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언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지 함께 나누어봅시다.
4. 사역 나누기
 - (1) 성령 충만한 목장과 돌봄이 필요한 목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 (3) "공동체 성경 읽기", "신년축복부흥성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